

제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2)

말씀: 마태복음 6장 5-8절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떠한 간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부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 때에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까?

- 1) _____을 위한 기도입니다.
- 2)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_____을 위한 기도입니다.
- 3) 지금 _____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6장 5-8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6: 5-8 신약 8 페이지 Presider
- 말 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2) 김성민 목사
Message Then How should we Pray? (2) Rev. Kim
- 찬 양 364(482)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같 이
Praise Sweet Hour of Prayer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은혜로다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It is God's Grace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30년 된 청바지)

30여 년 전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유명 청바지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바느질이나 색깔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팔지 않았고 모두 헐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곤 했다. 한 번에 수 십 만 불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런 중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원하면 그 불량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2-5에 \$30-40 하던 청바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몇 주 전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 청바지가 나왔다. 30년 전에 구입해서 잘 보관하던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다른 바지들은 입었으나 그것만큼은 입지 않고 구석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동서부로 3번씩 이사를 하던 중에도 그 청바지는 딱지가 붙은 그대로였다.

그 청바지를 발견한 그날도 실은 입고 싶지 않았다. 새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 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이 달랐다. 다시 또 넣어두면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큰 결단을 하며 30년 묵은 그 청바지를 입었다. 그런데 실망이다. 그 이유는 그런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잘 접혀 보관되었을 때에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 입어보니 허벅지 쪽에 통이 얼마나 크던지 그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 볼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다리통이 큰 청바지가 큰 유행이었지만 3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또한 허리가 맞지를 않았다. 끝에 단추를 풀고 다닌다면 괜찮겠지만 어디 그렇게 입을 수 있겠는가?

30년을 잘 간직했던 청바지를 입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보물과 같이 여기며 가지고 다닌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맞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소중히 여긴다고 모두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나눌 때에 오히려 빛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생명이 그렇고, 누리는 모든 것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말씀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설명하면서 알려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수 십 년을 잘 보관한다고 보물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전부 성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 받을 때에 보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9-10절)라고 하신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받은 것이 더 기억난다. 그렇게 많다. 어떻게 전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 인가? 고민해 본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 받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잘 접혀 창고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펼쳐져 마음껏 사용할 때에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친교 시에 이번 달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합니다.

2.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성도들 잘 정착 하도록
- 3)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영어회중)
- 4)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5)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6) 전 세계 폐렴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의 회복을 위하여
- 7)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오아시스(쉼터) 사역이 구체적으로 준비 될 수 있도록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터어키: 터어키 교회들의 위험한 중에 부흥을 위하여
깊은 뿌리교회: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인 동록서

교인 동록서가 준비 되었습니다. 김성정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새로 등록된 가정

이영애 (503)530-6557 Beaverton 거주

6.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0.00)

7. 2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6일(수)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